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88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年 02月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論文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에 관한 비교 연구

-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殷 貞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에 관한 비교 연구

-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Comparison Regarding the Body vocabulary Idiom of Korean-Japanese

- Focusing on expression of emotions -

2015年 0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殷 貞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에 관한 비교 연구

-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

指導敎授 金 仁 炫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語敎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殷 貞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李殷貞의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朴靑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金仁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丁意祥 印

2014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目　　次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2절 선행연구 및 문제점 ····· 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제2장 본　론 ····· 8

제1절 관용구의 일반적 정의 ····· 8

1. 한국어의 관용구 정의 ····· 8

2. 일본어의 관용구 정의 ····· 9

제2절. 신체어휘의 의미와 분류 ····· 11

1. 신체어휘의 의미 ····· 11

2. 신체어휘의 분류 ····· 11

제3절. 감정의 유형 및 연구범위 ····· 14

제4절.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 ····· 17

1.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 ····· 17

2. 눈/目(め)과 관련된 관용구 ····· 23

3. 코/鼻(はな)와 관련된 관용구 ····· 31

4. 입/口(くち)과 관련된 관용구 ····· 37

5. 귀/耳(みみ)와 관련된 관용구 ····· 41

6. 얼굴/顔(かお)과 관련된 관용구 ····· 46

제3장 결　론 ····· 52

참고문헌 ····· 5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表 目 次

<표 1> 「머리/頭(あたま)」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 17
<표 2> 한국어에만 있는「머리」에 관한 관용표현 ····· 19
<표 3> 일본어에만 있는「頭(あたま)」에 관한 관용표현 ····· 20
<표 4> 「눈/目(め)」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 23
<표 5> 한국어에만 있는「눈」에 관한 관용표현 ····· 26
<표 6> 일본어에만 있는「目(め)」에 관한 관용표현 ····· 29
<표 7> 「코/鼻(はな)」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 31
<표 8> 한국어에만 있는「코」에 관한 관용표현 ····· 34
<표 9> 일본어에만 있는「鼻(はな)」에 관한 관용표현 ····· 35
<표 10> 「입/口(くち)」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 37
<표 11> 한국어에만 있는「입」에 관한 관용표현 ····· 39
<표 12> 일본어에만 있는「口(くち)」에 관한 관용표현 ····· 40
<표 13> 「귀/耳(みみ)」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 41
<표 14> 한국어에만 있는「귀」에 관한 관용표현 ····· 43
<표 15> 일본어에만 있는「耳(みみ)」에 관한 관용표현 ····· 44
<표 16> 「얼굴/顔(かお)」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 46
<표 17> 한국어에만 있는「얼굴」에 관한 관용표현 ····· 48
<표 18> 일본어에만 있는「顔(かお)」에 관한 관용표현 ····· 50
<표 19> 「얼굴/顔(かお)」에 관한 관용표현에 사용된 색의 이미지 ····· 51
<표 20>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김정유형 통계표 ····· 5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圖 目 次

<그림 1> 「신체어휘 관용구의 용례 수 ····· 13
<그림 2> 「머리/頭(あたま)」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 18
<그림 3> 「눈/目(め)」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 25
<그림 4> 「코/鼻(はな)」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 33
<그림 5> 「입/口(くち)」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 38
<그림 6> 「귀/耳(みみ)」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 42
<그림 7> 「얼굴/顔(かお)」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 47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of Comparison Regarding the Body vocabulary Idiom of Korean-Japanese

- Focusing on expression of emotions -

Lee Eun-Jung
Advisor : Prof. In-Hyun Kim
Japanes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t is often said that it is easy to learn Japanese as it has the same word order as Korean and Korean and Japanese culture is in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sphere. However, it is frequently found that Japanese has many different things from Korean, which may caus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Above all, an idiom requires deep understanding in advanced levels as that its mastery becomes a basis of evaluating foreign language ability.

While an idiom is very easy and natural to use in mother tongue, it is very difficult and hard for those with low language knowledge and ability, kindergartners and primary grade elementary students, or foreigners.

For example, "to express strong rejection or aversion", Korean commonly uses a head(頭) such as「shaking one's head」, whereas Japanese commonly uses a face(顔) such as「顔を振る(shaking one's face)」rather than 頭を振る(shaking one's hea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re are many cases of using different body parts even for the same express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contrast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body idiom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nd improve good understanding of idioms in Japanese learning.

Learning body idioms is meaningful because Japanese learners can not only learn Japanese language more profoundly, but also understand Japanese nationality, history, culture, and lifestyle.

Accordingly, this study described the definition of「an idiom」in Korean and Japanese and discussed the definition of「body vocabulary」and「emotion」and their scope of selection for this study. Then, body idioms by parts were classified by emotional types and <Emotional Type Classification in Korean and Japanese> was made. Frequently used idioms and special idioms that are used only in Korean or Japanese were further examined by collecting additional examples.

Each emotion was divided into positive types and negative types. The frequency of emotional types and emotional expression was analyzed by body parts and in the whole body, respectively. Finally, <Emotional Type Statistics of Body Idioms in Korean and Japanese> was made.

As one idiom has not only one emotion, in addition to specific emotion, emotional expression that can vary with situations was separately entered in the remark column of <Emotional Type Classification in Korean and Japanese> to distinguish itself from previous research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흔히들 일본어를 학습하는 경우 “일본어는 웃으면서 배우러 들어갔다가, 울고 나온다.”라는 말을 한다. 그만큼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고 어순이 같다는 특성 때문에 ‘배우기 쉽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작 했다가도 막상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다보면 한국어와 상이한 점을 의외로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라 풀이된다.

그 중 특히 관용구는 어떻게 적절하게 구사 하느냐에 따라 외국어 능력의 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상급 단계로 올라 갈수록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1)

예를 들어, 「足が出る」와「手が長い」라는 관용구를 살펴보자.
본래의 뜻은「적자가 나다」「도벽이 있다」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 시 어휘의 표면적인 뜻 그 자체만 가지고「발이 나오다」「손이 길다」로 해석 버리면 완전히 틀린 것이 되고 만다.
위의 두 예문은 초급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쉬운 어휘인「足」「手」,「出る」「長い」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관용구 이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 만으로는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관용구는 그 나라의 사회 배경·문화·생활습관 등이 암시적· 비유적으로 함축 되어 있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나라의 사회 배경이 녹아들어 있는 일본어 표현의 예로「腕がある(솜씨·기량이 좋다)」「腕が上がる(솜씨·기량이 늘다)」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때「腕(팔)」은 ‘직인(職人)들의 솜씨, 기술, 재능’의 의미로 사용된다.

---

1) 宮地裕, 『慣用句の意味と用法』(일본: 明治書院, 1982/1993), p.1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표현은 메이지유신 이후, 무사나 귀족의 평등화로 인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높이 평가 받던 일본문화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양반 중심·선비 문화'로 육체노동을 한다거나 손을 더럽히는 일은 경시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일본어의 이와 같은 표현에 상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관용구는 모국어인 경우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언어 지식·능력이 낮은 자, 언어를 습득하는 단계의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여간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진저리를 치다"는 한국의 경우 「머리를 흔들다」라고 해서「머리(頭)」를, 일본에서는「頭を振る」라는 표현도 있으나 강한 거부의사를 표현 할 때는 보통「顔を振る」라고 표현 하면서「顔(얼굴)」을 많이 사용 한다.

이와 같이 같은 표현이라도 다른 신체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점에서 착안, 한국어와 일본어의 신체어휘 관용구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대조·분석하여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바른 관용구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특히 신체어휘 관용구의 경우, 신체어휘가 단지 그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1차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 등을 더욱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어휘 관용구의 비교·대조는 단순히 그 나라의 언어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안에 내포된 국가나 민족의 민족성·역사·문화·생활습관 등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선행연구 및 문제점

기존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1990년도 초반부터 2000년도 후반에 걸쳐서까지 관용구 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체어휘 관용구의 의미론적 차이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 되어 있다. 그 이후 머리부분(頭部), 몸통부분(同體部), 팔·다리부분(手足部)으로 구체화 하여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고, 2000년도 중반부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전반의 분류에서 벗어나 특정 신체부위 라던가 일부를, 예를 들어 머리부분(頭部), 몸통부분(同體部), 팔·다리부분(手足部)중에서도 머리부분(頭部)만 더 깊이 분석하고 탐구하는 형태의 논문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의미 분석에 따른 관용구 연구에는 朴英姬(1992)[2], 金顯淑(1992)[3], 崔圭俊(2000)[4],金松熙(2004)[5], 曹英花(2006)[6]등이 있다.

朴英姬(ibid.)와 崔圭俊(ibid.)은 일본어 관용구와 한국어 관용구와의 관계를 구성 요소 및 의미론적 차이를 중심으로 1) 구성요소 및 의미가 같은 것 2) 구성요소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 3) 구성요소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것 4) 일본어에만 있는 것 5) 한국어에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연구 하였다.

金顯淑(ibid.)는 신체어휘관용구를 구조적·품사적으로 분류해 각 용례를 분석하고, 신체부위를 머리(頭), 눈(目), 코(鼻), 입(口), 얼굴(顔), 귀(耳), 배(腹), 손(手), 발 (足), 가슴(胸), 기타(其他)로 나누어 의미 분석을 하였다.

金松熙(ibid.)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신체부위를 머리부분(頭部), 몸통부분(同體部),팔·다리부분(手足部)으로 나누어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를 비교 분석하였고,

---

2) 朴英姬. “身體語彙에 관한 慣用句의 硏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敎育大學院, 1992.
3) 金顯淑. “日本語 慣用句에 關한 연구: 身體語彙를 構成要素로한 慣用句를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淸洲大學校 大學院, 1992.
4) 崔圭俊. “日本語 身體語彙 慣用句의 硏究: 韓國語와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韓南大學校 敎育大學院, 2000.
5) 金松熙. “韓·日 慣用句의 比較硏究: 身體語彙 慣用句를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2004.
6) 曹英花. “일본어 관용구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啓明大學校 大學院, 200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曹英花(ibid.)는 선행 연구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재별 - 시체, 종교, 방향, 음식, 중국, 질병, 귀신, 숫자, 직업, 일본고전인물, 계절, 농사, 생사, 금전, 의류 / 의미별 - 분별력, 관심, 주의, 지적능력, 인간관계, 수단, 협력의 중요성, 고통, 감정, 노력, 감탄, 모순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분류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체어휘에 관한 관용구에서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이 행해진 연구로는 趙誠順(2002)[7], 孫璽仁(2008)[8], 박경선(2000)[9]등이 있다.

趙誠順(ibid.)은 신체 어휘에 관한 관용구를 기본적인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을 바탕으로 거기에 가감하여 기쁨(喜), 분노(怒), 슬픔(哀), 두려움(怖), 애정(愛), 미움(憎), 욕심(欲), 수치(恥)의 여덟 가지로 기본 영역을 설정하고, 신체 부위별·감정 유형별 대조하여 분석을 시도 하였다.

또한, 孫璽仁(ibid.)은 감정을 분류함에 있어서 분노, 공포, 기쁨, 미움, 사람, 슬픔뿐만 아니라 죄책감, 질투, 선망, 희망, 감사, 동정심과 같은 사회적으로 좀 더 미묘한 감정들로 세분화하여 연구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경선(ibid.)은 감정표현이 들어있는 신체어휘 관용구들을 15개의 긍정적 영역과 부정적 영역으로 나누어 감정유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비율과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관용 표현 중에서도 감정표현을 포커스로 한 이 세 논문을 분석 하던 중 세 개의 논문에서 각각 감정유형분류와 본론 전개부분에서 잘못 지적 된 부분 및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본 연구 에서는 그 부분을 정정하고 비교·대조를 심화 하고자 한다.

그 밖에 손(手)과 발(足)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한 유혜진(2004)[10], 頭部의 「目」를 중심으로 대조연구를 한 平野愛雅(2005)[11], 頭部(머리)를 중심으로

---

7) 趙誠順. “身體語彙慣用句의 韓·日 對照硏究: 8가지 感情에 의한 分類를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京畿大學校 敎育大學院, 2002.
8) 孫璽仁. “韓·日 兩 言語의 身體語彙 慣用句에 관한 對照硏究: 感情表現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敎育大學院, 2008.
9) 박경선. “感情分析에 의한 身體語彙 慣用句 考察.”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敎育大學院, 2000.
10) 유혜진. “한·일 양국어의 신체어휘 관용구의 비교고찰: 손(手)과 발(足)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조연구를 한 박정호(2008)[12], 胴體部(몸통부분)의 가슴(胸)과 배(腹)를 중심으로 연구한 沈賢用(2010)[13]등이 있다. 과거의 연구 경향과 비교 해 보았을 때 현대로 올수록 연구 범위가 각 부위별로 세분화 되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체어휘관용구 중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한·일 비교를 통해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바른 관용구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정의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모든 신체부위로 연구를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감정표현 중심이라는 부제를 놓고 보았을 때는 해당되는 관용구의 수도 턱없이 적은 신체부위도 많았다.

따라서 본론에서「관용구」의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정의를 기술하고,「신체어휘」와 「감정」의 정의와 본 연구에서 채택 하는 범위들에 대해 각각 논한다. 이를 토대로 각 신체부위별로 나타나는 신체어휘관용구를 감정유형별로 분류 하여 보기 쉽게 각 신체 부위 별로 <한·일 감정유형분류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각 신체 어휘별로 나타나는 감정유형 중에 사용빈도가 많거나, 한국에만 혹은 일본에만 있는 특수한 관용구들은 따로 용례를 수집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감정을 긍정적인 유형과 부정적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신체부위 별로는 어떤 감정유형이 많이 나타나는지, 또 신체 전반에 걸쳐서는

---

11) 平野愛雅. “身体語慣用句の日·韓対象研究: 頭部の「目」を中心に.” 碩士學位論文, 韓國外國語學校 大學院, 2005.

12) 박정호. “韓·日兩國語의 身體語彙關聯慣用句 對照研究: 頭部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13) 沈賢用. “身體語彙 慣用句の韓·日対象研究: 胴體部の가슴·(胸)と 배·(腹)を中心に.” 碩士學位論文, 韓國外國語學校 敎育大學院, 20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떤 감정표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기 쉽게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김정유형 통계표>로 정리 한다.

그리고 한 관용구에 꼭 한 가지 감정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감정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표현들은 가능한 다시 언급을 하였고, 선행연구를 행하던 중 박경선(ibid.)과 趙誠順(ibid.)의 연구에서는 감정유형분류에 있어서 잘못 지적 된 부분과 孫璽仁(ibid.)의 연구 에서도 보충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부분을 정정하고 비교·대조를 심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신체어휘 관용구와 그 용례의 출전 자료 및 약호는 다음과 같다.

<辭典>

한국 - 『國語國文學大辭典』, 서울대동아문화연구소편

김사영(1989), 『동아 새국어사전』, ㈜ 동아출판사

박영준·최경봉(1996), 『관용어대사전』, 태학사 <관용어>

남영신(2002), 『라이브 국어사전』, 성안당 <라이브>

일본 - 白石大二(1990) ,『国語慣用句辞典』, 東京堂出版

森田良行(2010), 『日本語の慣用表現辭典』, 東京堂出版

<한국소설>

박경리(1989), 『토지1-3』, 나남 <토지>

이효석(2001), 『메밀꽃 필 무렵』, 교육문화연구회 <메밀꽃>

염상섭(2002), 『삼대 上,下』, 소담출판사 <삼대>

박완서(2003),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그남자>

김주영(2007), 『달맞이 꽃』, 휴이넘 <달맞이>

권비영(2009), 『덕혜옹주』, 다산북스 <덕혜>

김유정(2010), 『동백꽃』, ㈜리베르스쿨 <동백꽃>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_____, 『만무방』, ㈜리베르스쿨 <만무방>

황순원(2010), 『소나기』, ㈜리베르스쿨 <소나기>

주요섭(2010),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리베르스쿨 <사랑방>

<일본소설>

青野聴(1983), 『愚者の夜』, 文芸春秋 <愚者>

宮本輝(1990), 『真夏の犬』,文芸春秋 <真夏>

綿矢りさ(1997), 『蹴りたい背中』, 河出書房新社 <背中>

浅田次郎(1997), 『悪魔』, 株式会社集英社 <悪魔>

松本バナナ(1998),『キッチン』, 角川書店 <キッチン>

重松清(2012),『ビタミンF』, 新潮社 <ビタミン>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본 론

제1절 관용구의 일반적 정의

1. 한국어의 관용구 정의

(1) 國語國文學大辭典(1989)

관용어란 광의(廣義)로는 다른 언어와의 상대적인 특색에 기초한 언어의 전체계(全體系)를 가리키지만, 보통은 협의로 어떤 언어 내부의 특유한 표현방식만을 관용어 혹은 관용구라고 한다.

① 문법적으로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표현과는 다른 비문법적·비논리적인 관용적 표현. 즉, 형태론적 관용구이다.

② 문법적인 구조는 정상적이지만 그 각 구성요소의 의미들을 그대로 결합해서는 전체적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표현. 즉, 형태·의미론적 관용구이다.

③ 위의 두 부류의 특성을 가진 표현. 즉, 형태·의미론적 관용구. 그리고 고사성어가 일반적으로 관용된 것이고, 비유적 표현이 당초 신선함을 잃고 사은유(死隱喩)로 이행되는 과정과 유사한 상투(常套)언어도 포함한다. 또한, 둘 이상의 단 어가 합하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어 마치 복합어(複合語)나 한 단어로 쓰이는 숙어(熟語)도 별다름이 없다. 14)

(2) 金文昌(1990)

관용구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자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하나의 구(句)로서 화석화(化石化)구조가 제3의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특별 연쇄어로 용어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식을 띄는데, 이들 중 「관용어」「숙어」가 절대 우

14) 『國語國文學大辭典』, 서울대동아문화연구소편, (서울: 신구문화사, 1989), p.5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를 차지하고 있다. 종래에는 「관용어」를 상위(上位)류 개념에 놓고 그 밑에 속담, 고사성어, 격언, 길조어(吉兆語), 은어, 숙어를 하위(下位)류로 분류하였다. [15]

(3) 임지룡(2003)

관용어란 둘 이상의 어휘소가 내용적으로 의미가 특수화 되어있고, 형식적으로 구성방식이 고정화 되어있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관용어를 흔히 관용구라고도 하는데 관용어라고 할 경우는 낱말의 범주로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한국어 관용구의 사전적 의미 및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본 결과, 관용구란 두 개 이상의 단어나 어구(語句)가 자연적인 결합에 의해 고정된 하나의 구(句)로서 의미상 새로운 개념을 지닌 형식이라 할 수 있다. [16]

2. 일본어의 관용구 정의

(1) 国語学大辞典(1988)

Idiom. 광의(廣義)로는 다른 언어와의 상대적인 특색에 바탕을 두고 한 언어 전체계(全體系)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협의로는 어떤 언어 특유의 표현법을 그 언어의 Idiom이라고 하고, 그 하나의 어형(語形)을 (an)idiom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관용구라는 것은, 항상 둘 이상의 단어가 연속하거나 상응해서 사용되고, 그 결합이 전체로서 어떤 고정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① 그 구성요소의 의미만으로는 그 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표현, 즉 원래의 의미가 확장 또는 전이되고 혹은 비유적으로 쓰여서 고정된 표현이다.

15) 金文昌, 『熟語概念論』, 基谷 姜信沆教授 回甲記念國語學論文集, (太學社, 1990), pp.265-87.
16) 임지룡, 『국어 의미론』(서울: 탑 출판사, 2003), p.1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② 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단어고유의 결합으로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다.
③ 일반적으로 문법이나 논리적인 의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이다.[17]

(2) 白石大人(1981)

관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문법적·윤리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語法으로 인사말, 의성어들의 단어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관용구로 정의하고 있다. [18]

(3) 宮地　裕(1982)

관용구는 成句의 일종으로 일반 語의 연합체이며 句로서의 통합을 갖는 連語句보다도 결합도가 높고, 격언·속담만큼 고정적 가치판단을 내포하거나 역사적·사회적 가치관을 나타내지 않지만, 그 안의 成句가 비유적·상징적으로 사용되며, 전체로서는 단순한 連語的 형식이 아닌 파생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반 連語句보다 결합도가 높은 것을 「連語成句的慣用句」라고 부르고 비교적 확실한 비유적 의미를 갖는 것을 「比喩的 慣用句」라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하나의 통일된 의미로는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어 쪽이 한국어에 비해 관용구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일본어의 경우에는「관용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관용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일 양국 모두「두 개 이상의 단어의 결합으로, 의미적으로는 구성요소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관용구의 보편적인 정의는 같았다. [19]

17) 『国語学大辞典』, 国語学会. (일본: 東京堂, 1988)
18) 白石大人,『国語慣用語学大辞典』(일본; 東京堂出版, 1990), p.1.はしがき.
19) 宮地裕, 『慣用句の意味と用法』(일본:明治書院,1982), p.23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신체어휘의 의미와 분류

1. 신체어휘의 의미

「신체어휘」란 기본적으로 신체의 각 부위를 가리키는 말의 무리이며, 또한 매일 매일의 언어생활 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휘로 작용하고, 생활 속에서 소박하고도 생생하며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낸다. 또한 신체어휘에 의한 표현은 대부분 단순한 감각 감성만의 언어가 아니라 「이 말이 나타나는 한 항상 그 배후에는 인간의 체취가 있고 삶이 있으며 따라서 또한 그 반응 내용에는 그것을 나타내는 자의 내적 세계가 묘사된다.」[20]
그리고 前田富祺(1976), 星野命(1976), 宮地敦子(1979,1982) 등에서 보듯이 신체어휘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나 이 밖에 「몸말」(「からだことば」) (和田節 1969, 秦恒平 1984), 「身体的部分名」(横山辰次 1975), 「五感のことば」(池田弥三郎 1977),「身体部分名」(国広哲弥 1981)등도 있다. [21]

2. 신체어휘의 분류

신체어휘에 관한 개념이나 분류, 표면상의 의의 등 가장 체계적인 고찰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는 星野命(1976)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신체어휘에 의한 표현의 의의란 무엇인가 등의 가장 근본에 대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신체어휘에 의한 표현이란 인간의 신체에 관한 어휘 중 직접 신체나 그 부위를 지칭하는 명칭(신체용어)을 일부 또는 전부를 차용하면서 신체의 상태·활동을 직접 지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상태나 활동을 암시 묘사하는 표현

20) 和田節, 『からだことば考』(일본: 思想の科学社, 1969), p.107, 임팔용,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연구』(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2006), p.8에서 재인용.
21) 임팔용,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연구』(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2006), p.9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다. (중략) 신체와 그 부위를 지시하는 명칭 예를 들면 머리·머리카락·뇌·이마·얼굴……·살·응어리·뼈·몸, 등 이들을 전부 포함하면서 그 부위의 상태나 활동을 직접 지시하기 보다는 다른 정신 상태나 암시적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또한 신체부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힘·열·아픔·피·눈물·때·땀·침·숨이나 더 나아가 「기(気)」를 이용한 표현의 일부 등도 신체어휘에 의한 표현에 포함시켜 지장이 없을 것이다.」[22]

또한, 和田節(1969)는 직접 눈에 보이는 부위(髪·頭·顔·目·歯·尻·背·膝·肉·骨·筋·脈 등)와 신체에서부터 나온 것(涙·汗·唾·屁·糞·尿·息)까지 일본어로 간주하고 있고[23], 石野博司(1989)는「魂·意·情け」와 같이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24]

한국의 임팔용(2006)은 일반적으로 널리 신체어휘라고 여겨지는 것을 직접 신체 그 자체에 관한 것과 약간 넓게 차악하여 신체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차적인 것으로 나누어 각기의 특징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였다.

우선「신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신체로부터 기인하는 제 현상이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고, 거기서 또 각각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으로 나누는 등 범위를 좀 더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 안에는「머리·목·얼굴·눈·입·코·귀·가슴·배·어깨·손·발」등의 일반적인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뼈·털·가죽·피부·근육·피·신경」등 몸 전체에 걸쳐 구비되어 작용하는 것이나「혹·점·응어리·주름·기미·보조개·새치」처럼 꼭 일정한 신체부위라고 말하기 어려운 성격의 대상들도 포함하고 있다.[25]

이처럼 한·일 양국 모두 신체어휘로 파악하고 있는 대상은 직접적인 신체부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각이나 작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광범위 하고, 학자마다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星野命.“身体語彙による表現.”『日本語講座』, 第4巻(1976), 日本語の語彙と表現 , pp.155-56.
23) 和田節.“からだことば考.”『思想の科学』, 9月号(1969), p.162,
24) 石野博司(1989), 前掲書, p.31.
25) 임팔용(2006), 前掲書, pp.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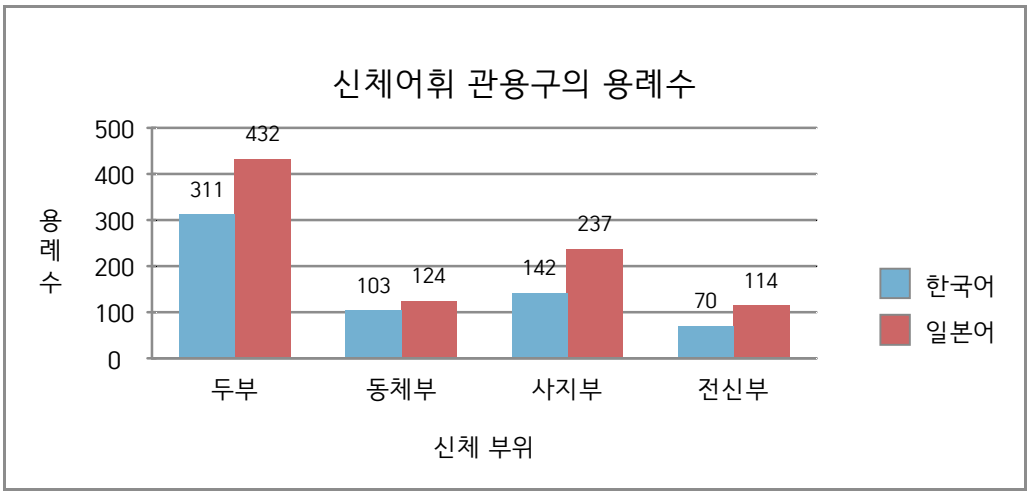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중 한·일 공통적으로 관용구 용례수가 풍부한 항목들만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머리부분(頭部): 머리, 눈, 코, 입, 귀, 얼굴 / 頭, 目, 鼻, 口, 耳, 顔
(2) 몸통부분(胴體部): 가슴, 배, 허리, 간, 애(밸) / 胸, 腹, 腰, 肝, 腸
(3) 팔·다리부분(四肢部): 손, 발, 엉덩이, 어깨 / 手, 足, 尻, 肩
(4) 전체부분(全身部): 몸, 피, 뼈 / 身, 血, 骨

임팔용(ibid.)은 신체관용구의 용례수를 각 부위별로 나누어 표로 정리 하였는데 그것을 다시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래프를 분석하여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머리부분(頭部)를 사용한 관용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팔·다리부분(四肢部), 몸통부분(胴體部), 전체부분(全身部)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신체어휘 관용구의 용례 수

앞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어와 일본어 신체어휘 관용구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대조·분석하여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바른 관용구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 기술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쓰이고 있는 관용구 중에서도 사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빈도가 높은 신체어휘 관용구의 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 관용구의 용례분석을 통해서 한·일 양국어의 신체어휘 관용구의 비슷한 점은 무엇이고 또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체어휘 관용구의 연구 및 용례 수집 범위를 신체부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는「머리부분(頭部): 머리, 눈, 코, 입, 귀, 얼굴 / 頭, 目, 鼻, 口, 耳, 顔」으로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연구를 하려 한다.

제3절 감정의 분류 및 연구범위

이재훈(1999)은 인간이 감정 상태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평가'와 '생리적 변화' 둘 다 이고 어느 것 하나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면서, 인지, 평가, 욕구 요소 가운데 평가 요소를 감정을 구별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26]

한편,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흔히 '표정'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을 고찰하여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갖는 기본적인 감정의 유형을 제시 하는데, 이와 같이 감정은 어떠한 '생리적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학적·심리학 적으로도 감정의 종류와 생리적 현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결국 감정이란,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제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발생하며,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는 비의도적인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어휘 또는 억양, 발화의 맥락과 발화 내용의 상호 작용 등을 통하여 언어적으로 표현 될 수 있다.[27]

---

26) 이재훈. "인지주의적 감정이론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19(1999), pp.151-176.
27) 홍종선·정연주, "감정동사의 범주 규정과 유형 분류," 『한국어학』, 통권 제145호(2009.11), p.39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렇다면 본 연구에 있어 감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선행연구에서도 보았듯이 趙誠順(ibid.)은 신체 어휘에 관한 관용구를 기쁨(喜), 분노(怒), 슬픔(哀), 두려움(怖), 애정(愛), 미움(憎), 욕심(欲), 수치(恥)의 여덟 가지로 기본 영역을 설정하였고, 孫璽仁(ibid.)은 감정을 분류함에 있어서 분노, 공포, 기쁨, 미움, 사람, 슬픔뿐만 아니라 죄책감, 질투, 선망, 희망, 감사, 동정심과 같은 사회적으로 좀 더 미묘한 감정들로 나누어 연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금 느슨한 기준을 적용시켜 감정동사가 갖는 특징들을 연구했던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전형적인 감정동사가 갖는 특징을 살피고 감정동사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홍종선·정연주(ibid.)[28]의 연구를 참조로 감정을 분류하였다. 하여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체어휘 관용구 연구보다 더 세분화 하여 총 23개의 감정으로 분류 하여 연구 및 용례 수집 범위로 삼고 비교·대조 해 보고자 한다.

물론 '감정동사'를 가지고 감정의 범위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나 영역을 어디까지로 정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기쁘다, 슬프다, 부끄럽다'처럼 뚜렷하게 감정의 표현이 되는 어휘가 있는가 하면, '눈이 간다'나 '낯 뜨겁다'처럼 감정동사에 포함될 것인지 어닌지가 불분명한 어휘들도 존재한다. 후자의 두 가지 표현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 거나('눈이 간다') 감정 발생에 따른 신체적인 반응과 관련된 것('낯 뜨겁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면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낯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영역의 일부분을 언급함으로써 화자가 특정 감정 상태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환유적인 부분들은 관용구의 큰 특징이기도 하므로, 환유적인 방식을 통한다거나 발화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들도 본 연구범위에 포함 시켰다.

28) 홍종선·정연주(2009), 前揭書, pp.319-41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정 영역의 세부 분류는

(1) 감동 (2) 감사 (3) 관심(주의) (4) 관대 (5) 겸손 (6) 기쁨 (7) 상쾌함 (8) 평온함 (9) 존경 (10) 거부·부정 (11) 고뇌 (12) 놀람 (13) 두려움 (14) 무관심 (15) 배신(감) (16) 분노 (17) 불만 (18) 수치(심) (19) 슬픔 (20) 욕심(욕구) (21) 자만(심) (22) 질림 (23) 혐오

이렇게 총 23개의 감정유형이며, 각각의 신체부위가 관용구에서 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쓰이는지 부정적인 감정유형으로 쓰이는지도 연관 지어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9]

- 긍정적 감정: 감동, 감사, 관심, 관대, 겸손, 기쁨, 상쾌함, 평온함, 존경
- 부정적 감정: 거부·부정, 고뇌, 놀람, 두려움, 무관심, 배신(감), 분노, 불만, 수치(심), 슬픔, 욕심(욕구), 자만(심), 질림, 혐오

29) 이분법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감정으로 나누었으나 꼭 어느 한쪽에 국한 된다고 말 할 수 없는 표현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놀람」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부정적일 때만 사용하지는 않는 것처럼 정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부 정황이 없었을 때의 일반적인 감정만으로 긍정과 부정의 유형을 분류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절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

제4절에서는 신체어휘 관용구의 연구 및 용례 수집 범위를 신체부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는「머리부분(頭部) - 머리(頭/あたま), 눈(目/め), 코(鼻/はな), 입(口/くち), 귀(耳/みみ), 얼굴(顔/かお)」을 중심으로 감정유형 분류표를 만들어 한·일 양국어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명하고, 각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표현들을 따로 정리하여 본다.

1. 머리/頭(あたま)와 관련된 관용구

머리/頭(あたま)는 내부는 인간의 사고나 감정 등의 모든 지각이나 감각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①사람이나 동물의 목에서부터의 「윗부분」 ②조직·단체의「상층부」,「사고력」,「인원수」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③관용적 의미로는「관심」,「겸손」,「상쾌함」,「평온함」,「존경」,「고뇌」,「두려움」,「배신(감)」,「분노」,「수치(심)」,「자만(심)」으로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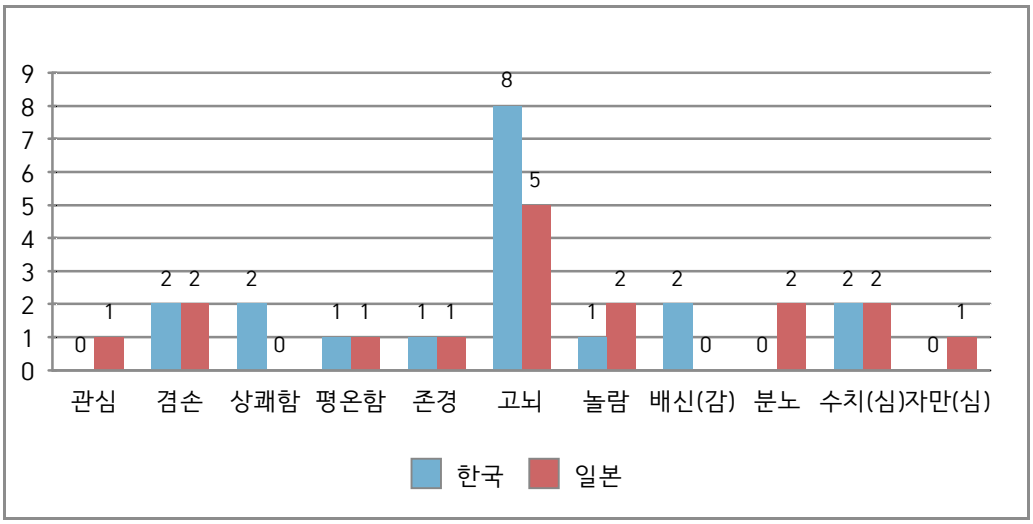
<표 1> 「머리/頭(あたま)」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감정유형	한 국 어	일 본 어
긍정적	관심		頭にある
	겸손	머리를 굽히다 머리를 조아리다	頭を下げる 頭が低い
	상쾌함	머리가 가볍다 머리가 맑다	
	평온함	머리를 식히다	頭を冷やす
	존경	머리가 숙여지다	頭が下がる
	고뇌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가 지끈거리다	頭が重い 頭が痛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정적			頭を悩ます
		머리를 감싸다	頭をかかえる
		머리(골머리)를 썩이다	
		머리(골머리)를 앓다	頭を痛める
	놀람	머리(칼/털)이 곤두서다	
			頭から水を掛けられたよう
			頭から水を浴びたよう
	배신(감)	뒤통수(뒷머리)를 때리다	
부정적		뒤통수(뒷머리)를 맞다	
	분노		頭に来る
			頭から湯気を立てる
	수치(심)	머리를 들지 못하다	頭が上がらない
		머리(뒤통수)를 긁다	頭をかく
	자만(심)		頭が高い
	11	19	17



<그림 2> 「머리/頭(あたま)」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한국어「머리」에서는 주로「고뇌, 배신(감), 수치(심), 놀람」순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주를 이루었으며,「관심, 존경, 상쾌함, 평온함, 겸손」처럼 긍정적인 유형의 감정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본어「頭(あたま)」의 경우에도「고뇌, 놀람, 분노, 수치(심), 자만(심)」의 부정적인 영역과 「겸손, 관심, 평온함, 존경」의 긍정적 영역의 구분으로 한국어「머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상쾌함」과「배신(감)」의 감정유형은 일본어에서는 볼 수 없었고, 반대로「관심」과「분노」의 감정유형은 한국어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본 조사에 의하면「존경」의 감정유형 표현은 한·일 양국 모두「머리/頭(あたま)」에서만 발견 되었다.

<표 2> 한국어에만 있는「머리」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머리가 가볍다	정신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다
머리가 맑다	
머리가 복잡하다	고민이 많다
머리가 지끈거리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에 몰두하다
머리가 어지럽다	생각이 뒤섞이거나 뒤얽혀 갈피를 못 잡다
머리(골머리)를 썩이다	어떤 일로 몹시 애를 쓰며 생각에 몰두하다
머리(칼/털)이 곤두서다	무섭거나 놀라서 날카롭게 신경이 긴장되다
뒤통수(뒷머리)를 때리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다
뒤통수(뒷머리)를 맞다	배신이나 배반을 당하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머리」는 관용어구상에서 「골머리」·「골치」로도 표현이 되고,「썩이다」,「앓다」등의 술어와 결합하여「고뇌」을 나타낸다. 이 이외에도 '복잡하다', '무겁다(重い)', '아프다(痛む)'라는 술어와 결합하여「고뇌」를, 반대로 '가볍다', '맑다' 등의 술어와 결합하면 걱정이나 고민이 없어져서 편안해진 상태, 곧「평온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일본어 관용표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일본어 표현에서는「頭が重い(머리가 무겁다)」라는 표현은 존재 하지만, '머리가 가볍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에 해당하는「頭が軽い」라는 관용표현은 찾을 수가 없었다.

「고뇌」의 감정을 가지는 관용구의 용례를 보면 다음 용례(1)~(4)와 같다.

(1) 시험걱정, 여자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요즘 머리가 무척 복잡하다. (관용어, p.144)

(2) "어쨌든 지금 나는 그런 것으로 머리를 썩일 이유가 없네! 그깟 일이야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면 그만 아닌가." (삼대 下, p.192)

(3) エッフェル搭の真下で、ヤマダと別れてから直面している問題に頭を痛めた。(愚者, p.157)

(4) にな川が魂も一緒に抜け出ていそうな、深いため息をついた。その後、片手で前髪を鷲掴にするようにして頭を抱えている。(背中, p.14)

용례(1)~(4)처럼 이러한 표현들은 실제로 머리가 썩고, 머리가 아프다는 단순한 상태나 감각이 아닌 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한 느낌을 걱정·고민에 비유하고 있다.

<표 3> 일본어에만 있는「頭(あたま)」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頭にある	관심이 있다
頭が低い	(누구에게나) 겸손하다/ 고분고분하다
頭を悩ます	머리[골치]를 썩이다/ 머릿살이 아프다
頭から水を浴びたよう =頭から水を掛けられたよう	뜻밖에 무서운 일을 당하여 질겁하는 모양
頭に来る	약이 오르다, 화가 나다
頭から湯気を立てる	몹시 노하다
頭が高い	건방지다, 거만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어의「머리」에서는 희(喜)·노(怒)·애(愛)·락(樂)의 기본적인 정서적 감정표현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본어의「頭(あたま)」에서는「頭に来る(화가나다)」라는 「분노(怒)」의 감정이 나타나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한국어에서도「화가 머리끝까지 나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화가 났을 때 쓰는「혈압이 오른다」라는 말도 비슷한 표현이다. 이는 화가 나거나 흥분을 하면 피가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확 올라옴을 느낄 수 있듯이 그러한 생리적인 특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관용구라 생각된다.

「頭から湯気を立てる(머리에서 김을 뿜다)」도 「분노(怒)」의 감정을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와 비슷한 형태로 쓰이는 한국어표현을 찾아본다면 요즘 속어로 쓰이는「머리에서 스팀난다(돋는다)」정도가 될 수 있겠다.

또한「놀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있어「頭から水を浴びたよう(머리에 물을 뒤집어쓴 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찬물을 뒤집어써서 몸이 잔뜩 움츠러져 움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생각해 본다면「머리(칼/털)이 곤두서다」,「머리(끝)이 쭈뼛쭈뼛하다」를 들 수 있다. 한국어에서 유사한 표현으로는 '소름 돋는다'·'닭살 돋는다' 등이 있으며, 이 또한 인체의 생리적인 특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표현이고, 이러한 표현은 반드시 놀람의 감정 이외에도 추위나 「두려움」 등을 느꼈을 때도 사용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의「頭が低い(머리가 낮다)」와「頭が高い(머리가 높다)」라는 관용구는 머리의 위치를 상대보다 낮게 하고 있는 모습과 높게 쳐들고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각각 「겸손」과「자만(심)」을 나타내었다. 이 표현과 자칫 혼동하여 사용 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頭が下がる(머리가 숙여지다)」와「頭を下げる(머리를 숙이다)」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조상님들이 우리조국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를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진다. (관용어, p.144)

(6) よほどの忍耐と克心がなければできることではない。わしは夜間高校を卒業した人間には頭が下がる。(真夏, p.180)

위의 용례(5)와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머리가 숙여지다」와 「頭が下がる」는「존경」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이 또한 '머리의 움직임(위치)'에서 생겨난 동일한 발상의 표현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다른 연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頭が下がる」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頭を下げる(머리를 숙이다)」와 「頭が上がらない(머리를 들 수 없다)」의 감정유형의 분류가 그것인데, 선행되었던 연구 논문들 중에 박경선(2000)[30]과 趙誠順(2002)[31]의 논문을 재검토 해 보고자 한다.

박경선(ibid.)은 「頭が下がる」,「頭を下げる」둘 다 긍정적 유형인「존경」의 의미로 분류 하였으나「頭を下げる」의 경우는「인사하다·절하다/굴복하다/감탄(감복)하다」라는 의미로 존경의 감정유형으로 분류되기 보다는「사죄」또는「겸손(머리를 조아리다)」의 범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또한, 趙誠順(ibid.)은 「頭が上がらない」를「존경」의 감정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頭が上がらない」는「고개를 들지 못하다(고개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존경보다는「수치(심)」의 감정유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頭を下げる」와「頭が上がらない」는 각각 「겸손」과「수치(심)」의 감정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0) 박경선(2000). 前掲書, p.44.
31) 趙誠順(2002), 前掲書, p.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눈/目(め)과 관련된 관용구

한·일 양국에서 가장 많은 관용구 용례를 가지고 있는 눈/目(め)은 보는 기능에 속하는 신체부위로 ①사물을 보는 역할로서의 눈「시력」②사물을 바라볼 때의 눈의 모습「눈초리」,「눈짓」·「주목」 ③「경험」과「체험」④사물에 대한「안목」과「분별력」,⑤「감시」⑥타인과의 관계에 대한「후원」⑦무엇을 보는「태도」⑧「감정표현」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중 감정표현에 해당하는 「눈/目(め)」과 관련 된 관용구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눈/目(め)」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감정유형	한국어	일본어
긍정적	감동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目がしらが熱くなる
		눈시울을 붉히다	
	관대	눈을 감다	目をつぶる
	관심	눈에 들다	目に入る
	(호감)	눈이 가다	目にとどめる
		눈(길)을 주다	目をやる
			目に留まる
			目に触れる
			目を注ぐ
	(희망)	눈이 반짝이다	目が輝く
		눈을 반짝이다	目を輝かす
	(매력)	눈이 부시다	
		눈을 빼앗기다	目を奪われる
		눈이 팔리다	
		눈(이)멀다	
	(만족)	눈에 차다	
	(애정)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目に入れても痛くない
		눈이 맞다	
	(주의)		目をつける
			目をむける
			目をかける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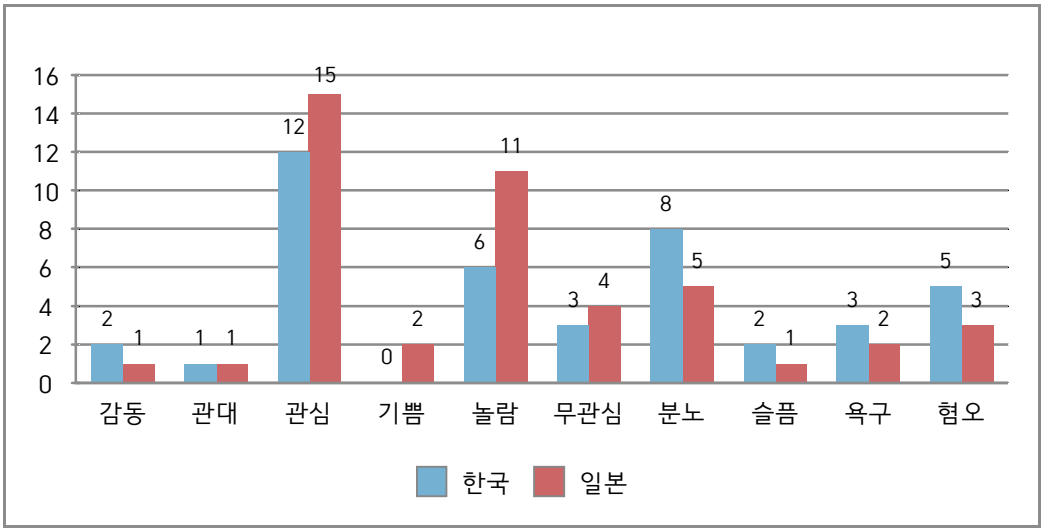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긍정적			目を配る 目を留める
	기쁨		目を細める 目じりを下げる
부정적	놀람	눈을 동그랗게 뜨다	目を丸くする 目を見張る
		눈을 의심하다	目を疑う
		눈이 돌아가다	
		눈이 왕방울만해지다	目を大きくする 目を皿にする
		눈(눈알)이 튀어나오다	目が飛び出る
		눈이 휘둥그레지다	目が舞う 目が回る 目がさめる 目をさます 目を白黒させる
	무관심	눈도 주지 않는다	目もくれない
		눈을 돌리다	目をそらす 目をそむける
		눈을 떼다	目を離す
	분노	눈을 모지게 뜨다	目を三角にする 目にかどを立てる 目の色を変える
		눈을 부릅뜨다	目をむく
		눈을 치켜뜨다	目をつり上げる
		눈(알)이 뒤집히다	
		눈(알)을 부라리다	
		눈에 쌍심지를 켜다	
		눈에서 불이 나다	
		눈에서 불똥이 튀다	
	슬픔	눈에서 피눈물이 나다	
		눈가를 적시다	目をうるませる
	욕구	눈이 멀다	目がくれる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정적		눈이 벌겋다 눈이 어둡다	 目がくらむ
	혐오 (반감)	눈밖에 나다 눈살을 찌푸리다 눈에 거칠다 눈 위에 혹(=눈엣가시) 눈을 내리깔다	 目に余る 目の上のこぶ 目を伏せる
	10	42	45



<그림 3> 「눈/目(め)」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한국어「눈」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으로는「관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감동, 관대」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는「분노, 놀람, 혐오, 무관심, 욕심(욕구), 슬픔」등의 다양한 감정이 눈에 띈다.

일본어「目(め)」의 경우에도「관심」의 감정유형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며 그 외에「놀람, 분노, 무관심, 혐오, 욕심(욕구), 슬픔」순으로 「놀람」과「분노」의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한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어「目(め)」에서만「目を細める」「目じりを下げる」와 같은 「기쁨」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어의 모두「관심」의 감정유형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한국어는 관심의 범주 안에서도 특히 상대에 대한 「매력·호감·애정」을 포함하는 표현이 주를 이룬다면, 일본어는「주의」의 표현을 많이 포함한다는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리고「目をくれない」「目をそらす」처럼 눈(길)을 주지 않거나 돌려 버리면, 반대로「무관심」의 감정을 표현 한다.

(7)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관용어, p.95)

(8) 椅子の上で三角座りをした。コンパクトになってしまった彼の姿が恥ずかしくなって、目をそらした。(背中, p.33)

용례(7)의「눈멀었습니다」의 경우 실제로 맹인(盲人)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는「관심」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례(8)의「目をそらした」의 경우는 앞 문단의 '恥ずかしくなって(부끄러워져서)'라는 구체적 상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무관심의 표현보다는 '부끄러워 외면하고 싶었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 이처럼「目をそらす」는 무관심의 감정유형으로 분류는 하였으나 외면하고 싶은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표 5> 한국어에만 있는「눈」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눈시울을 붉히다	동경하거나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다
눈이 부시다	아주 아름답고 황홀하다 활약이나 업적이 뛰어나다
눈이 팔리다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눈(이)멀다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
눈에 차다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
눈이 맞다	두 사람의 마음이나 눈치가 서로 통하다
눈이 돌아가다	놀라거나 격분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다
눈이 휘둥그레지다	놀라거나 두려워서 눈이 크고 둥그렇게 되다
눈(알)이 뒤집히다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에 집착하여 이성을 잃다
눈(알)을 부라리다	눈을 크게 뜨고 눈망울을 사납게 굴리다
눈에 쌍심지를 켜다	몹시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다
(눈에서 불이 나다)	두 눈에 불이 일 것처럼 화가 몹시 나다
(눈에서 불똥이 튀다)	(재앙이나 화가 미치다)
눈이 벌겋다	자기 잇속만 찾는 데에 몹시 열중하다
눈 밖에 나다	신임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다	한스럽다
눈살을 찌푸리다	마음에 못마땅한 뜻을 나타내어 양미간을 찡그리다
눈에 거칠다	보기가 싫어 눈에 들지 아니하다
눈엣가시	= 눈 위의 혹 , 目の上のこぶ

(9) 그건 그렇다 치고 응오가 더 딱하지 않은가. 기껏 힘들여 지어 놓았다 남 좋은 일 한 것을 안다면 <u>눈이 뒤집힐 일이겠다</u>. (만무방, p.293)

용례(9)의「눈(알)이 뒤집히다」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격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본어에 비해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눈(알)이 뒤집히다」와 비슷한 표현으로 「눈이 돌아가다」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직역되는「目が回る」[32]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눈이 돌아가다」는 '놀라거나 격분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반면에「目が回る」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매우 바쁘다'라는 뜻이 된다. 단, 한국어에도「눈」과「돌아가다」사이에 "핑핑"이라는 부사를 넣어「눈이 핑핑 돌아가다」라고 하면 '의식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바쁘거나 빠름'을 나타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돌아가다」는 '예쁜 여성에게 눈이 돌아가다' 라던가 '맛있는 것만 보면 눈이 돌아가다' 등의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으로「관심(흥미)」,「욕심(욕구)」등의 감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다음은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이다.

(10) 나는 <u>눈에 쌍심지가 오르고</u>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 번 휘돌아 보고야 그래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동백꽃, p.41)

(11) 식민지 시대를 정당화 시키는 이야기를 듣고 나자 <u>눈에서 불이 났지만</u> 감정을 누르면서 하나하나 그의 말에 모순을 지적하였다. (관용어, p.90)

용례(10)의「눈에 쌍심지를 켜다」는 '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를 것처럼 화가 몹시 나다'라는 뜻이 된다. 용례 (11)의「눈에서 불이 나다」,「눈에서 불똥이 튀다」라는 표현도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불(火)을 포함시킨 표현이라 볼 수 있겠고, 이렇듯 한국어「눈」에는 붉고 뜨거운 성질을 가진 불(火)과 관련시켜 격해진「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32) 「目が回る」는 매우 바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흔히 쓰고 있지만 조사 결과, '매우 놀람'의 뜻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白石大人, 前掲書. p.244. - ① めまいがする ② 非常に驚く様子·たとえ ③ 非常に忙しい様子·たと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6> 일본어에만 있는「目(め)」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目にとどめる	눈에 남기다 / 주의 깊게 보다
目に留まる	눈을 끌다 / 마음에 들다
目に触れる	눈에 띄다 / 눈에 보이다
目を注ぐ	주의해서 보다 / 주시하다
目をつける	주목하다 / 눈여겨보다
目をむける	시선을 보내다
目をかける	돌보아 주다 / 총애하다
目を配る	살펴 보다 / 두루 살피다
目を留める	주의하여 보다
目を細める	기쁘거나 귀여운 것을 보고 웃음 짓는 모양
目じりを下げる	만족하여 싱글벙글하다 여자에게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짓다
目を皿にする	눈을 크게 뜨고 보다 놀라거나 찾는 모양의 비유
目を見張る	놀라거나 하여 눈을 크게 뜨다
目が舞う	매우 놀라고 곤란하다
目が回る	매우 바쁘다 / 매우 놀랍다
目がさめる(=目をさます)	잠을 깨다 / 정신 차리다 놀라는 모양의 비유, 매우 아름다움의 비유
目を白黒させる	(괴로워서) 눈을 희번덕거리다 몹시 놀라 당황하다
目をそらす	시선을 딴 데로 돌리다 / 외면하다
目をそむける	차마 보지 못하여 시선을 돌리다
目にかどを立てる	눈에 쌍심지 켜다
目の色を変える	화나거나 놀라서 눈빛이 변하다
目に余る	눈꼴 사납다 / 묵과할 수 없다

위의 < 표6 >의 첫 번째「目にとどめる」부터「目を留める」까지 9개의 관용구는 모두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어느 한 곳을 바라보거나 시선을 향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라는 뜻으로 흥미·매력 등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눈/目(め)의 움직임이나 모양으로 어떤 감정유형들이 나타나는지 소설 속의 여러 용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2) 日本そばを食べるときにうまそうにつるつるやれば、全ヨーロッパ人が目を三角にして睨んでくるのと同じで (愚者, p.176)

(13) 屋根に立ち、窓から半身だけ見える私を見つけると、雄一は目を丸くして、みかげー? 口を動かした。(キッチン, p.134)

용례(12)의「目を三角にして(눈을 삼각형으로 하고)」는「目にかどを立てる(눈에 각을 세우다)」「目の色を変える(눈색을 바꾸다)」와 유사한 표현으로 한국어의 「눈에 쌍심지를 켜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나거나 놀라서 눈매가 날카롭게 변하고 눈빛이 변한다는 의미이다.

용례(13)의「目を丸くして」는「目を見張る」와 동일한 표현으로 놀라거나 하여 눈을 크게 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음 용례(14)~(17)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표현으로 눈의 모양 이나 행동으로 얼마나 다양한 감정들의 표현 가능한지를 볼 수 있다.

(14)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래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가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동백꽃, p.41)

(15)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서 있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동백꽃, p.41)

(16)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백꽃, p.4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7)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나를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동백꽃, p.45)

이처럼 눈/目(め)은 사람의 감정을 반영해 주고 미묘한 감정이나 움직임으로 외부세계를 향해 내부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체부위로 '놀란 눈, 화난 눈, 기뻐하는 눈, 애정 어린 눈, 애처로운 눈, 가엾어 하는 눈, 눈물 고인 슬픈 눈, 독기어린 눈, 날카롭고 매서운 눈, 노려보는 눈'등 으로 다양한 감정의 표출이 가능하다.

3. 코/鼻(はな)와 관련된 관용구

코/鼻(はな)는 ①얼굴에서 중앙에 높게 솟아나와 있는 부분으로 ②호흡하고 냄새를 맡는 곳 ③후각 등의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④「자신감」,「자만」의 상징으로 주로 비유되어 쓰인다. ⑤일본에서는 코를 가리키며 본인임을 나타내기도 하며 코/鼻(はな)와 관련된 관용표현에서는 원래의 기능인 후각적인 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외 ⑥「감동」,「감사」,「거부·부정」,「고뇌」,「무관심」,「분노」,「수치(심)」,「슬픔」,「자만(심)」,「질림」,「혐오」의 감정유형이 나타난다.

<표 7> 『코/鼻(はな)』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감정유형	한 국 어	일 본 어
긍정적	감동	코끝이 찡하다 콧등이 시큰하다	鼻をかむ
	감사	코가 땅에 닿다	
부정적	거부·부정		鼻をつま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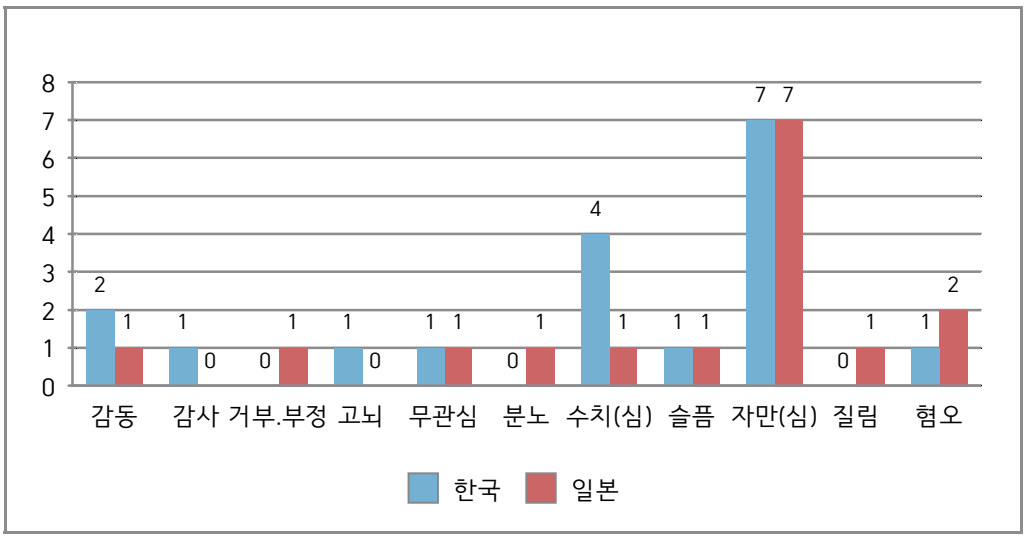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정적	고뇌	코(가)빠지다	
	무관심	콧방귀를 끼다	鼻であしらう
	분노		鼻を怒らす
	수치(심)	코가 납작해지다 큰코다치다 코를 떼다 코를 싸쥐다	鼻がへこむ
	슬픔	코를 훌쩍거리다	鼻をすする
	자만(심)	코(콧대)가 높다 코가 솟다 코가 우뚝하다 코대를 내흔들다(쳐들다) 코를 쳐들다	鼻(柱)が高い 鼻を高くする 鼻をうごめかす 鼻をふくらめる 鼻にかける 鼻っ柱をへし折る
	(고집)	코가 세다 코를 세우다	鼻っ柱が強い
	질림		鼻につく
	혐오	코웃음 치다	鼻で笑う 鼻持ちがならない
	11	18	1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 「코/鼻(はな)」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코/鼻(はな)」한·일 양국 모두「자만(심)」의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어의 경우에는「자만(심), 수치, 혐오」순으로, 일본어의 경우에는「자만(심), 혐오, 수치」순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주를 이루었다.

한·일 양국어의 고유의 감정유형으로는 한국어에서는「감사」,「고뇌」의 감정이 일본에서는 「거부·부정」,「질림」의 감정유형이 발견되었다.

또한 신체부위 중 '코'는 '코' 자체를 사용한 관용구 보다는 '코끝','콧등','콧대' 등 연계된 신체부위를 사용한 관용구가 많이 조사되었다.

(18) "자식이란 쓸데없지. 제 발로 걸어갈 만치 키워 노면 코가 세서 어미 말을 들어야지. 그러기에 옛말이 하나 글은 게 없느니. 무자식 상팔자라구." (라이브, p.1878)

(19) "저렇게 콧대가 센 여자를 누가 휘어잡아 게리고 살까?" (라이브, p.1881)

용례(18)과(19)「콧대가 세다」에서의「콧대」는 자존심에 비유되는 것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높게 세우거나 세다하여「자만(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코(콧대) 가 꺾이거나 움푹 들어가면 자존심이 실추당한 것으로「수치(심)」의 감정유형으로 분류 된다.

<표 8> 한국어에만 있는「코」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코끝이 찡하다	어떤 일에 감격하거나 슬퍼서 눈물이 나오려 하다
콧등이 시큰하다	
코가 땅에 닿다	머리를 깊이 숙이다
코가 빠지다	고집을 부리다
콧방귀를 뀌다	아니꼽거나 못마땅하여 남의 말을 들은 체 만 체 말대꾸를 아니하다
큰코다치다	크게 봉변을 당하거나 무안을 당하다
코를 떼다	무안을 당하거나 핀잔을 맞다
코를 싸쥐다	무안이나 핀잔으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다
코가 솟다	잘난 체하며 우쭐대다
코가 우뚝하다	
코를 쳐들다	
코를 세우다	고집을 부리다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구들의 특징 중 가장 눈에 띄는 감정유형은「감동」이다. 코는 심리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매우 기분이 좋으면 벌름거리고, 슬플 때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코끝이 아려오기도 한다. 「코끝이 찡하다, 콧등이 시큰하다」도 이러한 생물학적 반응에서 생겨난 표현으로 '어떤 일에 감격하거나 슬퍼서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시큰하다'는 말은 '뼈마디 등이 시리거나 저리는 듯하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슬픈 영화를 보거나 무언가에 감동하거나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눈물샘과 코가 연결되어 있어 찡하고 시큰거리는 것을 관용구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본어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 한다면 「코」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고「가슴(胸)」를 이용하여「胸にじんと来る(가슴이 뭉클(찡)하다)」정도가 될 수 있겠다. 「じんと」는 〔1.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된 모양 : 뭉클; 찡. 2. 손발 등이 저리는[마비되는] 모양 : 짜릿짜릿.〕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처럼 「코(끝)」이 아닌 심장과 가까운「가슴(胸)」으로 직접 감정을 표현 하였다.

(2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널 새경 주고 있는 줄 알았다간 큰코다친다.
(달맞이, p.)

용례 (20)의「큰코다치다」를 포함하여「코를 떼다」,「코를 싸쥐다」라는 표현은 코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중심, 또한 나 스스로(自)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코를 떼였다'거나 '코가 다쳤다'는 것은 곧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거나 봉변을 당함으로 해석 할 수 있고, '코를 싸쥐고 가린다'는 뜻은 곧 내 몸 전체를 가리고 싶을 만큼 창피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표 9> 일본에만 있는「鼻(はな)」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鼻をかむ	감격스럽거나 한탄스러운 모습을 비유
鼻をつまむ	상대방의 말을 부인하거나 상대의 언동에 거부·반대하는 태도
鼻であしらう	아니꼽거나 못마땅하여 남의 말을 들은 체 만 체 말대꾸를 아니하다
鼻を怒らす	몹시 성이 나다
鼻をうごめかす	코를 벌름거리다/우쭐거리고 뽐냄
鼻をふくらめる	내세우다 / 자랑하다
鼻にかける	
鼻っ柱をへし折る	콧대를 꺾어 놓다
鼻につく	싫어지다 / 진력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鼻持ちがならない	언동이 아니꼽고 천해서 보고 듣기에 역겹다

먼저 「鼻をつまむ」라는 표현을 살펴보자. 「鼻をつまむ」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코를 쥐다」이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코를 싸쥐다(=싸쥐다)」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수치(심)」의 감정을 나타낸다. 하지만「鼻をつまむ」는 수치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언동에 강하게「거부·반대」하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처럼 자칫하면 혼동하여 쓰기 쉬운 것이 한·일 관용구이다.

(21) 仲間という言葉はわさびみたいに鼻にツンときた。ツンを吹き出すように、鼻を鳴して笑った。(背中, p.97~98)

용례 (21)의「鼻にツンときた」는「냄새가 코를 찌르다」라는 뜻으로「鼻につく」와 같은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 때 「ツンと」는 「つんつん」의 다른 표현으로 '새침하고 애교가 없는 모양' 이나 '냄새가 강하게 코를 찌름'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하지만 이 뜻은 단순히「악취가 코를 찌르다」라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변하여 확 전해져 오는 냄새가 역하여「싫어지다」「진력나다」라는 감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용례(21)에서도 仲間(동료,친구)라는 말에 강한 부정의 감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한·일 양국어 모두「코/鼻(はな)」는 「자존심」,「자만」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높게 세우거나 세다하여「자만(심)」을 반대로 코(콧대)가 꺾이거나 움푹 들어가면 「수치(심)」의 감정유형을 나타내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입/口(くち)과 관련된 관용구

입/口(くち)은 눈/目(め) 다음으로 관용구의 수가 많았으며, 1차적인 기능은 ①「먹는 것」과 ②「말하는 것」 ③「사건의(발단)」더 나아가 ④ 관용구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말솜씨」,「입버릇」,「소신」,「생계」,「경박」 ⑤「기쁨」,「고뇌」,「놀람」,「분노」,「불만」,「수치(심)」,「욕구」,「질림」등의 감정표현 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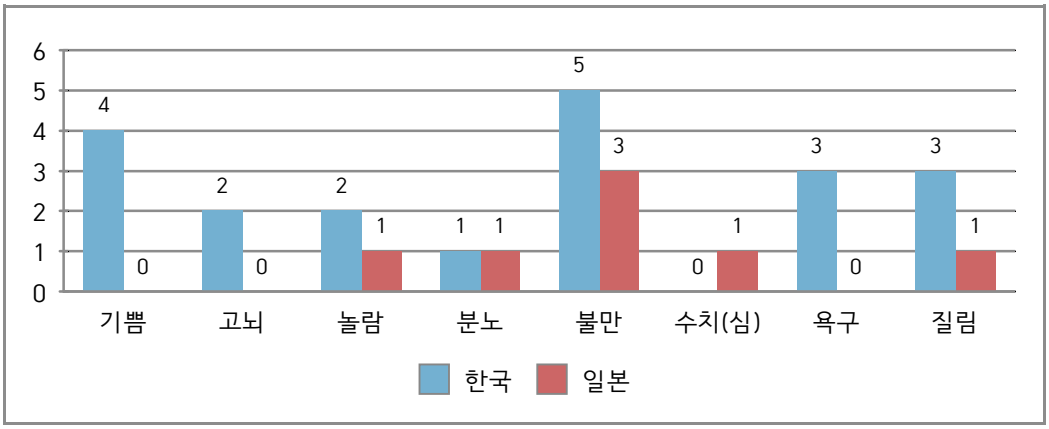
<표 10> 「입/口(くち)」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감정유형	한 국 어	일 본 어
긍정적	기쁨	입이 가로 터지다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다 입이 (딱)벌어지다 입이 함박만하다	
부정적	고뇌	입이 바짝바짝 마르다 입이 타다	
	놀람	입을 (딱)벌리다 (벌린)입을 다물지 못하다	開いた口がふさがらない
	분노	입에 게거품을 물다	口ばしを鳴らす
	불만	입만 아프다 입을 열자나 빼고 있다 입/주둥이를 내밀다 입(안)이 쓰다 (쓴)입을 다시다	口を尖らせる 口が過ぎる 口がうるさい
	수치(심)		口をおおう
	욕구	입을 씻다 입을 씻기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정적	(식욕)	입이 광주리만 하다	
	질림	입에서 신물이 나다 입에 침이 마르다 입이 닳다	口が酸っぱくなる
	8	20	7



<그림 5> 「입/口(くち)」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한국어「입」에서는「불만, 기쁨, 욕구, 질림, 고뇌, 놀람, 분노」순으로 감정표현이 나타났고, 일본어「口(くち)」의 경우는「불만, 놀람, 분노, 수치(심)」순이고 「기쁨」과「고뇌」의 감정유형은 일본어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한국어「입」이 일본어「口(くち)」에 비해 3배 정도 관용표현의 용례수가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다 한국에는 일본에 비하여 많은 욕설이 존재한다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 해 보았다,

한국은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내재하는 감정들과 속에 있는 울분, 화 등을「입」기관을 통해서 표출하고, 그럼으로써 인관관계나 감정을 컨트롤하는 반면에 일본은 本音(본심)과 建前(겉치레 말)이 따로 존재 하듯이 자신의 속마음을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본어 보다 한국어에 입과 관련된 감정표현들이 많은 것은 말로써 감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국문화의 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 11> 한국어에만 있는「입」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입이 가로 터지다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다	기쁘거나 즐거워 입이 크게 벌어지다
입이 (딱)벌어지다	매우 놀라거나 좋아하다
입이 함박만하다	입이 함지박만큼 커질 정도로 매우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름
(입이 바짝바짝 마르다) (입이 타다)	매우 불안하거나 긴장되다
입만 아프다	여러 번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말한 보람이 없다
입/주둥이를 내밀다 입(안)이 쓰다	일이나 말 따위가 못마땅하여 기분이 언짢다
(쓴)입을 다시다	못마땅하게 여기다
입을 씻다	이익 따위를 혼자 차지하거나 가로채고서는 시치미를 떼다
입이 광주리만 하다	잔뜩 화가 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음식을 많이 먹는 모양
입이 냠냠 거리다	더 먹고 싶어 하는 모양
입에 침이 마르다	몇 번을 거듭해서 말하다
입이 닳다	극도의 싫증을 느낄 정도로 지긋지긋함

(22) 설빔을 입은 아이들은 낮은 마루 끝에 정강이를 바짝 붙이고 몸을 내어 밀며 입이 찢어져라고 웃었다. (토지1, p.83)

(23) 교자상 하나 가득한 음식이 다 간이 맞고 보기도 좋았다. 신랑이 입이 함박같이 벌어지고 어린 조카들까지 식구들을 다 불러보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남자, p.1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례(23)의「입이 함박만 하다」라는 표현은 「입이 함박만큼 커질 정도로 매우 기뻐하고 만족 해 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함박이란 함지박의 준말로 옛 조상들이 쓰던 통나무의 속을 파서 만든 그릇으로 이것 또한 한국의 문화가 반영 된 관용표현 이다.

일본은 이러한 관용구가 없다는 說이 일반적인데 조사한 바로는 신체어휘를 사용한 것은 형태상·의미상으로 완전히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笑壺(えつぼ)」·「笑壺に入る」라는 어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笑壺(えつぼ)」의 「壺(つぼ)」는 「항아리, 단지」를 의미하는데 결국「笑壺(えつぼ)」는「웃음 항아리 = 웃음보」가 된다. 그래서「笑壺に入る(웃음항아리에 들어가다)」는「뜻대로 되어 크게 기뻐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기쁨」의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물론 신체관용구는 아니었지만 용기(容器)를 사용하여 관용구를 만드는 것은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33]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표 12 > 일본어에만 있는「口(くち)」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口をおおう	부끄러워 입을 가리다
口が過ぎる	말이 지나치다
口がうるさい	말이 많아 성가시다

그 밖에 한국어의「입에서 신물이 나다」,「(벌린)입을 다물지 못하다」,「입을 삐죽 내밀다」는 일본어「口が酸っぱくなる」,「開いた口がふさがらない」,「口を尖らせる」와 대응되는 표현이다. 문장의 구조상으로는 완전히 같은 형식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유사한 표현들로 한·일 양국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입에 침이 마르다」,「입이 닳다」/「입을 (딱)벌리다」/「입을 열자나 빼고 있다」,「입/주둥이를 내밀다」와 같이 한국어 쪽이 일본어 보다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했다.

33) 孫璽仁(2008). 前掲書, p.2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4) 그는 덕혜의 임신 소식에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덕혜, p.266)

(25) オリチャンのことを夢中で話し続けていた彼は、口が半開きのぼうっとした顔で、立ち上がった私を見上げた。(背中, p.48)

5. 귀/耳(みみ)와 관련된 관용구

기본적으로 귀/耳(みみ)는 듣는 기능에서 시작한다. ①청각을 맡은 기관 ②신체기관 으로서의「귓바퀴」③「물건 값에 좀 더 붙이는 금액」④「바늘구멍」⑤「돈의 끝자리」같은 1차적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⑥「잔소리」·「반감」,「경청」등의 파생된 의미를 가진다. 그 밖에 ⑦「관심」,「평온함」,「놀람」,「무관심」,「수치(심)」,「욕심(욕구)」,「질림」,「혐오」등의 감정 표현 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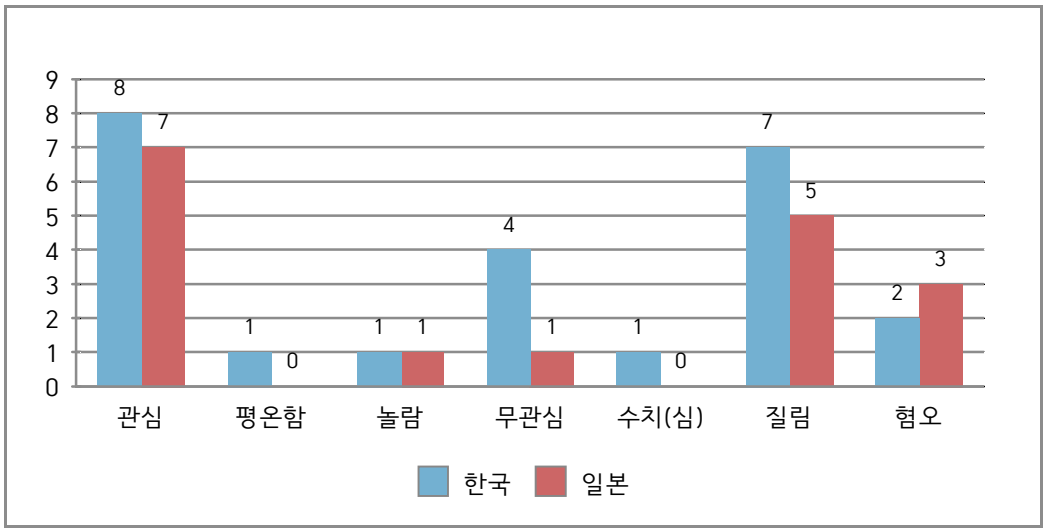
<표 13> 「귀/耳(みみ)」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감정유형	한 국 어	일 본 어
긍정적	관심	귀가 번쩍 뜨이다	
		귀가 솔깃하다	耳に溜まる
			耳のあかを取って聞く
		귓전에 맴돌다	
	(흥미)	귀가 쏠리다	
		귀를 기울이다	耳を傾ける
		귀를 (곤두)세우다	耳を立てる
		귀를 열다	
		귀를 재다	
			耳を貸す
			耳を澄ます
			耳をそばだてる
	평온함	귀를 씻다	
부정적	놀람	귀를 의심하다	耳を疑う
	무관심	귀를 팔다	
		귀 밖으로 듣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정적		귓등(귓전)으로 흘리다 /~로 듣다	耳を潰す
	수치(심)	귀밑이 빨개지다	
	질림	귀가 닳다 귀가 따갑다 귀가 아프다 귀를 막다 귀에 딱지가 앉다 귀에 못이 박히다 귀에 싹이 나다	耳が痛い 耳を塞ぐ 耳をおおう 耳にたこができる 耳につく
	혐오	귀에 거슬리다 귀에 거칠다	耳に逆らう 耳に障る 耳に当たる
	7	24	17



<그림 6> 「귀/耳(みみ)」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귀/耳(みみ)」에 나타난 표현은 다른 신체어휘 관용구에 비해 1차적 기능인 '듣는 기능'에서 파생된 관용구가 대부분이다. 듣는 태도에 따라 「관심·흥미」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기도 하고「질림」이 되기도 한다.

한국어「귀」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질림, 무관심, 혐오, 수치(심)」의 순으로 나타나고, 긍정적인 감정은「관심」과「평온함」이었다.

일본어「耳(みみ)」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는「질림, 혐오, 무관심」긍정적인 감정은「관심(흥미)」유형만 나타나며 한국에 있는「평온함」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한국어에만 있는「귀」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귀가 번쩍 뜨이다	들리는 말에 선뜻 마음이 끌리다
귓전에 맴돌다	들었던 말이 기억나거나 떠오르다
귀가 쏠리다	마음이 끌리어 열심히 듣거나 보다
귀를 열다	들을 준비를 하다
귀를 재다	귀를 기울이다
귀를 씻다	세속의 더러운 이야기를 들은 귀를 씻는다 세상의 명리를 떠나 깨끗하게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귀를 팔다	귀를 딴 데로 돌리어 잘 듣지 않다
귓등(귓전)으로 흘리다 /~로 듣다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다
귀밑이 빨개지다	몹시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다
귀가 닳다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귀가 따갑다	
귀에 싹이 나다	= 귀에 못이 박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귀는 오감(五感)중에 하나로서 소리로 사물을 인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식별하기도 하지만, 귀로 전달되는 소리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주변 상황을 판단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흥미를 느낄 때 귀를 가까이 대기도 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귀를 기울이다」,「귀가 쏠리다」,「귀가 솔깃하다」,「귀를 세우다」등이며, 여기서「귀를 기울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귀를 세우다」는「耳を傾ける」,「耳をそばだてる」에 대응하는 표현이다.[34)]

다음 용례(26)~(28)은 이런 다양한 「관심」의 감정유형에 해당하는 용례들이다.

(26) 포장마찻 집에서는 딴 손님이 없을 때에만 그런 객쩍은 짓을 했기 때문에 주인 남자도 잠자코 귀를 귀울였다. (그남자, p.44)

(27) 耳を澄ますと、中からにぎやかな仕事の声と、なべのの音や、食器の音が聞こえてきた。(キッチン, p.50)

(28) 彼はふと耳をすますようにした。遠くで電話が鳴いていた。それを無視して、荘はほほえみながら言った。(真夏, p.209)

<표 15> 일본어에만 있는「耳(みみ)」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耳に溜まる	=귀를 막다/ 들으려 하지 않다
耳のあかを取って聞く	주의해서 잘 듣다
耳を貸す	귀를 기울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다
耳を澄ます	주의해서 잘 듣다
耳をそばだてる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쫑긋거리다]
耳を潰す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다
耳をおおう	= 귀를 막다/ 들으려 하지 않다
耳に付く	신물이 나도록 듣다/ 역겹게 들리다
耳に当たる	= 귀에 거슬리다/귀가 따갑다
耳がかゆい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비판이 신경 쓰이다

「耳に付く」는「신물이 나도록 듣다」라는 뜻으로 「耳にたこができる」와 유사한 표현이다. 「耳にたこができる」에서 「たこ」란 잦은 마찰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생긴「두껍고 단단한 살」을 의미하는데, 이런 굳은살이 귀에 생겼다는

34) 박경선(2000). 前掲書, p.3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은 그 만큼 여러 번 듣고 또 들어서 지겹다는 의미이다.

한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으로는「귀가 닳다」,「귀에 못이 박히다」,「귀에 싹이 나다」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용례는 다음 (29)~(33)과 같다.

(29) 우리 어머님은 우리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집안인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 하셨다. (관용어, p.58)

(30) 있는 사람이 뻗대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일일이 탓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더라도 슬슬 흘려들어야만 두면 그만 아니오. (삼대上, p.205)

(31) 柱時計の振り子の音が、いやに大きく耳について、小沢さんの住いからは何も聞こえてこなかった。(真夏, p.180)

(32) そのおかげで勉強はよくできたのだけれど、厳格で陰湿な家庭教師の話を僕は耳にたこができるほど聞かされていた。(悪魔, p.91)

(33) 加奈子の手から受話器をむしり取りたい衝動を、懸命にこらえた。いや、その前に、耳を両手で塞いでしまいたいたくなるのを。(ビタミン, p.187)

마지막으로 趙誠順(ibid.)의 연구에서「耳がかゆぃ」는「耳に付く」와 비슷한 의미로 여러 번 들어서 귀가 근질근질할 정도로 귀찮다는 뜻이고, 한국어의「귀가 가렵다」는 '누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풀이되어 형태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耳がかゆぃ」라는 말은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비판 따위를 듣고 마음이 편치 못하다'라는 뜻으로 한국어의「귀가 가렵다」와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얼굴/顔(かお)과 관련된 관용구

얼굴/顔(かお)은 눈, 코, 입, 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며 사람과의 첫 만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위이다. 대개 감정들은 얼굴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의 감정 상태나 심경의 변화들을 알 수 있는 부위이며, 동시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얼굴/顔(かお)은 ①「체면」,「면목」②「지위」③「사교」등의 관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외 ④「겸손」,「기쁨」,「평온함」,「거부·부정」,「고뇌」,「두려움」,「무관심」,「분노」,「수치(심)」,「혐오」,「자존심」등의 감정 표현 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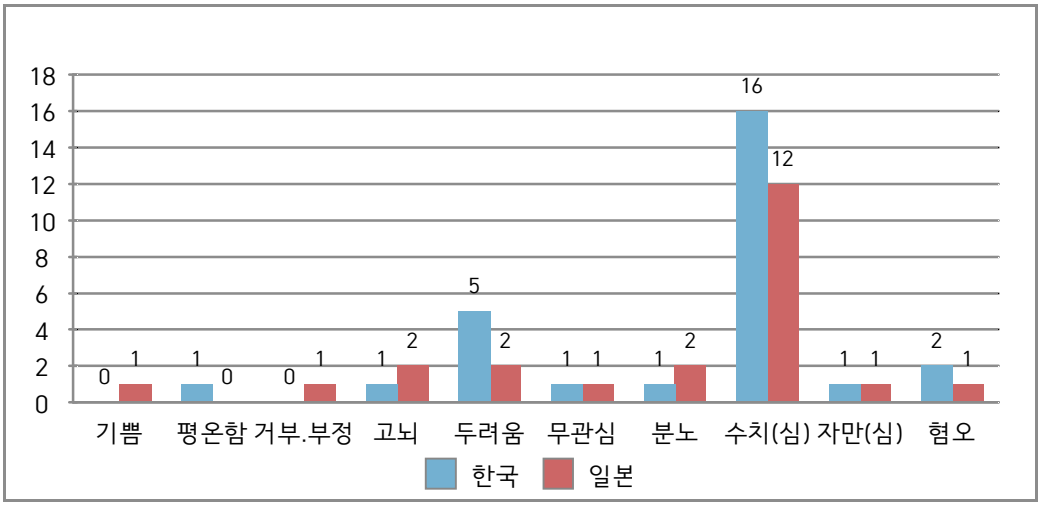
<표 16> 「얼굴/顔(かお)」관련 관용구의 감정유형

	감정유형	한 국 어	일 본 어
긍정적	기쁨		顔をほころばせる
	평온함	얼굴이 펴지다	
부정적	거부·부정		顔を振る
	고뇌	얼굴에 그늘이 지다	顔が曇る 顔を曇らせる
	두려움	얼굴이 (샛)노래지다 얼굴이 잿빛이 되다 얼굴이 (새)파래지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다 얼굴이 (새)하애지다	 顔が灰色になる 顔が真っ青になる
	무관심	얼굴을 돌리다	顔をそむける
	분노	얼굴이 붉그락푸르락해지다	顔を染める 顔をふくらす
	수치(심)	얼굴에 먹칠을 하다 얼굴에 똥칠을 하다 얼굴을 깎다 얼굴이 깎이다 얼굴을 더럽히다 (면목없음)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다	顔(つら)に泥を塗る 顔をつぶす 顔がつぶれる 顔を汚す 合わせる顔がな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정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얼굴을 못 들다 얼굴(낯)이 간지럽다 얼굴이 달아오르다 얼굴(낯)이 뜨겁다 얼굴이 발개(빨개)지다 얼굴(낯)이 붉어지다 /~을 붉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되다 얼굴이 화끈거리다	顔向けならない(できない) 顔から火が出る 顔が赤い/真っ赤になる 顔を赤くする 顔に紅葉が散らす 顔が熱くなる
	자만(심) (자존심)	낯이 서다	顔が立つ
	혐오	얼굴(낯)을 찌푸리다 얼굴(낯)을 찡그리다	顔をしかめる
	10	28	23



<그림 7> 「얼굴/顔(かお)」관용구의 감정 유형 분석

「얼굴/顔(かお)」은 한·일 양국에서 모두「수치(심)」에 관한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감정유형도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주를 이루었다.

「수치(심)」다음을 차지하는 감정 유형은 한국어에서는「두려움, 혐오」등이고, 일본어「顔(かお)」의 경우는「두려움, 분노, 자만(심), 혐오」등 이었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중「평온함」은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감정 유형이었고, 「기쁨」,「거부·부정」은 일본에서만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7> 한국어에만 있는「얼굴」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얼굴이 펴지다	얼굴에 밝은 빛이 돌다 얼굴에 화기(和氣)가 있다
얼굴이 (샛)노래지다	< 표18 > 참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다	
얼굴이 (새)하애지다	
얼굴에 똥칠을 하다	체면이나 명예를 더럽히다
얼굴을 못 들다	남 부끄럽다
얼굴(낯)이 간지럽다	너무 보잘것없거나 염치없는 짓이 되어 남 보기에 부끄럽다
얼굴이 달아오르다	부끄러움이나 취기 등으로 얼굴이 뜨거워 발그레해지다
얼굴(낯)이 뜨겁다	남 보기에 부끄럽다
얼굴이 발개(빨개)지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오르다
얼굴이 화끈거리다	남 보기에 부끄럽다

한국어「얼굴」은「얼굴이 (샛)노래지다」,「얼굴이 (새)파래지다」,「얼굴이 (새)하애지다」,「얼굴이 발개(빨개)지다」처럼 색채를 통해 다양한 감정표현을 하는 것이 흥미롭다.

주요섭 소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는 특히나 많은 색채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만 정리하면 다음 용례(34)~(38)와 같다.

(34) 그랬더니 아저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나를 몹시 흔들면서 “그런 소리 하문 못써.”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몹시 떨렸습니다.
(사랑방, p.6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5) …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닥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도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p.65)

(36)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랑방, p.68)

(37)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나는 사람처럼 '응?'하고 놀라더니 또 금시에 백지장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사랑방, p.68)

(38) 아저씨는 방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받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나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파래 졌습니다. (사랑방, p.74)

그리고 「얼굴이 발개(빨개)지다」「얼굴을 붉히다」등에서 「붉음(赤)」은 단순히 수치만이 아닌 그 속에 부끄러움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복합적 정서표현으로 사용된다.

수치(심)이란, 타인 앞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져서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간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흥분할 때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으로 안면의 혈관이 넓어져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데, 이런 「붉은색(赤)」으로의 색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9) 순사는 자신도 모르게 또 한걸음 물러섰다. 그 사이 옹주가 침착하게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순사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다. (덕혜, p.102)

(40) にしても、突然話かけられると、ちょっと焦る。顔がかっと熱くなって、咄嗟に言葉が出ない。(背中, p.103)

(41) 「ハツとこんな話するのは照れるね、中学の時はしなかったから。」
口は輪ゴムみたいに丸くゆるんで、顔を赤くして笑っている。ちょっと間抜けな感じがする、私の好きな、絹代の照れている時の笑顔。(背中, p.14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앞의 용례(34)~(41)의 얼굴에 띄는 색채로 드러나는 감정유형을 정리해 보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수치(심)」, 하애지고 파래지는 것은「두려움(공포/놀람)」, 붉그락푸르락 해지는 것은「분노」의 상징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표 18> 일본어에만 있는「顔(かお)」에 관한 관용표현

관 용 구	의 미
顔をほころばせる	화색을 띠다, 웃는 얼굴이 되다
顔を振る	고개를 젓다 (부정/거부)
顔をふくらす	몹시 화가 나다, 심기가 불편하다
顔(つら)に泥を塗る	= 얼굴에 똥칠하다/ 체면을 상하게 하다
顔から火が出る	= 얼굴이 화끈거리다
顔に紅葉が散らす	= 얼굴이 홍당무가 되다

「顔から火が出る」는「얼굴이 화끈거리다」,「얼굴이 달아오르다」,「얼굴이 뜨겁다」등과 대응되는 표현이다.

「顔に紅葉が散らす」는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물들다'라는 의미로「얼굴이 홍당무가 되다」와 상통하는 말이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 한국은「홍당무」를 일본은「紅葉(단풍)」을 써서 표현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홍당무'도 ' 紅葉(단풍)'도 붉은 색을 띄는 것으로 「붉음(赤) = 수치」라는 같은 발상에서 나온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일 양국은 모두 얼굴에 「불(火)」과 「붉음(赤)」을 연관시켜「수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얼굴에 똥칠을 하다」와 비슷한 뜻인 「얼굴에 먹칠을 하다」,「얼굴이 깎이다」,「얼굴을 들 수가 없다」,「얼굴이 깎이다」등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얼굴/顔(かお)」에는 「코/鼻(はな)」와 마찬가지로 '체면'이라는 뜻이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로는 「顔がつぶれる/~をつぶす」,「顔を汚す」,「合わせる顔がない」,「顔向けならない/できない」등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만, 같은「체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도「얼굴/顔(かお)」은「수치(심)」의 감정을 주를 이루는 반면,「코/鼻(はな)」같은 경우는 수치(심)보다는「자만(자랑)」에 관련된 표현이 주를 이룬다는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얼굴/顔(かお)에 관한 관용구는 얼굴에 나타나는 색에 의해 다양한 감정들이 비유적으로 표출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 이러한「얼굴/顔(かお)」과 관련된 한·일간의 색채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를 李明玉(2007)는『日本語と韓国語の慣用表現の差異』라는 책에서 기술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표로 다시 정리 해 보면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얼굴/顔(かお)」에 관한 관용표현에 사용된 색의 이미지

색 깔	한 국 어	일 본 어
붉은색(赤)	수치(심), 두려움	놀람, 수치(심), 두려움, 분노(흥분)
파란색(青·青白い)	두려움, 추위	두려움, 불안(감)
흰색(白)	놀람, 두려움	
검정색(黒)		두려움, 불안(감), 병(病気)
노란색(黄色)	병(病気)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결 론

이상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언어의 감정표현을 다룬 신체어휘관용구, 그 중에서도 머리부분(頭部)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해보았다. 신체어휘가 기본적으로는 신체부위를 지시하는 1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관용구로 쓰일 때에는 단순한 신체부위의 위치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비유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 등을 더욱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0>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김정유형 통계표

	머리	頭	눈	目	코	鼻	입	口	귀	耳	얼굴	顔
감동			2	1	2	1						
감사					1	0						
관대			1	1								
관심(주의)	0	1	12	15					8	7		
겸손	2	2										
기쁨			0	2			4	0			0	1
상쾌함	2	0										
평온함	1	1							1	0	1	0
존경	1	1										
거부·부정					0	1					0	1
고뇌	8	5			1	0	2	0			1	2
놀람	1	2	6	11			2	1	1	1		
두려움											5	2
무관심			3	4	1	1			4	1	1	1
배신(감)	2	0										
분노	0	2	7	5	0	1	1	1			1	2
불만							5	3				
수치(심)	2	2			4	1	0	1	1	0	16	12
슬픔			2	1	1	1						
욕심(욕구)			4	2			3	0				
자만(심)	0	1			7	7						
(지존심)											1	1
질림					0	1	3	1	7	5		
혐오			5	3	1	2			2	3	2	1
	19	17	42	45	18	16	20	7	23	17	28	2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김정유형 통계는 <표 20>과 같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머리(頭), 눈(目), 코(鼻), 입(口), 귀(耳), 얼굴(顔)부위를 사용한 관용구 모두가 긍정적인 감정유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유형이 많았으며, 세부적인 감정유형 및 특징적인 감정에 대한 비교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머리」와「頭(あたま)」는 양국 모두「걱정·고민」의 표현이 많았고 긍정적인 영역보다는 부정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감정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존경」은 머리/頭(あたま)」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감정유형이었으며, 일본어의 「頭(あたま)」는「頭に来る(화가 나다)」에서와 같이「분노」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도 발견되었다.

(2) 「눈」과「目(め)」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눈의 모양과 크기로「기쁨」,「분노」,「놀람」,「감동」등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고, 「분노」의 감정은 한국어에서 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이점은 일본어의「目(め)」에서는「흥미·관심」「주의」의 표현을 포함한 것이 많았고, 다양한 감정 중에「수치(심)」을 나타내는 용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어「目(め)」는「기쁨」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코」와「鼻(はな)」는 한·일 양국 모두「자만(심)」의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어「코」의 경우「자만(심), 수치, 혐오」순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주를 이루었고, 일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감사, 고뇌」의 감정을 나타내는 용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어의「鼻(はな)」는 「자존심」,「자만」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 반면, 한국어의「코」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의「힘」,「세력」,「자존심」,「체면」등의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입」과「口(くち)」는 한국어「입」의 경우는「불만, 기쁨, 욕구, 질림, 고뇌, 놀람, 분노」순의 빈도로, 일본어「口(くち)」의 경우는「불만, 놀람, 분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치(심)」순의 빈도로 각각 사용되고 있었으며,「기쁨」과「고뇌」의 감정유형은 일본어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한국어「입」이 일본어「口(くち)」에 비해 3배 정도 관용표현의 용례수가 많다는 점이다.

(5)「귀/耳(みみ)」에 나타난 감정표현은 다른 신체어휘 관용구에 비해 1차적 기능인 '듣는 기능'에서 파생된 관용구가 대부분이었다. 듣는 태도에 따라 「관심·흥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질림」,「무관심」을 나타냈다. 한·일 양국어 모두 긍정적인 감정유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유형 쪽으로 다양한 쓰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본어「耳(みみ)」의 경우 긍정적인 감정유형은「관심·흥미」만 나타났으며, 한국어「귀」에 있는「평온함」의 감정으로 사용되는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6)「얼굴/顔(かお)」는 한·일 양국에서 모두「수치(심)」에 관한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감정유형도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주를 이루었다. 「평온함」을 나타내는 유형은 한국어에서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반대로「기쁨」,「거부·부정」은 일본에서만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홍당무」와「紅葉(단풍)」등의 상징물을 통해 수치(심)의 감정표현이 가능하였고, 코/鼻(はな)와 마찬가지로 '체면'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신체어휘 관용구 가운데「머리부분(頭部) - 머리(頭/あたま), 눈(目/め), 코(鼻/はな), 입(口/くち), 귀(耳/みみ), 얼굴(顔/かお)」에 나타난 감정유형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한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들의 유사점과 상이점의 비교·분석 결과가 일본어 검정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일본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번 용례 수집과 정리의 결과물을 토대로 삼아, 머리(頭), 눈(目), 코(鼻), 입(口), 귀(耳), 얼굴(顔)이외의 몸통부분(胴體部)의 연구와 팔·다리부분(四肢部)에 관한 관용표현 연구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임팔용,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연구』(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2006)

유은경, 『유래로 배우는 일본어 관용구』 (서울 : 新論社, 2000)

박승현, 『실전에 강한 일본어 관용어휘 3300』 (서울 : 유드유북스, 2009)

구라시나 사야카, 『일본어 관용구·사자성어』 (서울 : 넥서스, 2010)

오자키 다쓰지, 『테마로 배우는 일본어 관용구』(서울: ㈜다락원, 2014)

白石大人,『国語慣用語学大辞典』(일본; 東京堂出版, 1981)

宮地裕, 『慣用句の意味と用法』(일본: 明治書院, 1982/1993)

金文昌, 『熟語概念論』, 基谷 姜信沆教授 回甲記念國語學論文集, (일본: 太學社,1990)

川嶋 優, "慣用句教室" (일본 : 集英社, 2007)

李明玉, “日本語と韓国語の慣用表現の差異" (일본 : 笠間書院, 2007)

国広鉄弥, "新編 日本語誤用·慣用小辞典" (일본 : 株式会社大進堂, 2010)

2. 학술지

이재훈. “인지주의적 감정이론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19(1999)

홍종선·정연주, “감정동사의 범주 규정과 유형 분류,” 『한국어학』, 통권 제145호(2009.11)

星野命. “身体語彙による表現.”『日本語講座』, 第4巻(1976), 日本語の語彙と 表現

和田節. “からだことば考.” 『思想の科学』, 9月号(196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논문

金顯淑(1992), 「日本語 慣用句에 關한 연구 ; 身體語彙를 構成要素로한 慣用句를 중심으로」 淸洲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朴英姬(1992), 「身體語彙에 관한 慣用句의 硏究」 中央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崔圭俊(2000), 「日本語 身體語彙 慣用句의 硏究 ; 韓國語와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韓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松熙(2004), 「韓·日 慣用句의 比較硏究 ; 身體語彙 慣用句를 中心으로」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曹英花(2006), 「일본어 관용구에 관한 연구」 啓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趙誠順(2002), 「身體語彙慣用句의 韓·日 對照硏究 ; 8가지 感情에 의한 分類를 中心으로」 京畿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孫璽仁(2008), 「韓·日 兩 言語의 身體語彙 慣用句에 관한 對照硏究 ; 感情表現을 중심으로」 東國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유혜진(2004), 「한·일 양국어의 신체어휘 관용구의 비교고찰 ; 손(手)과 발(足)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平野愛雅(2005), 「身体語慣用句の日·韓対象研究 ; 頭部の「目」を中心に」韓國外國語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박정호(2008), 「韓·日兩國語의 身體語彙關聯慣用句 對照硏究 ; 頭部를 中心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沈賢用(2010), 「身體語彙 慣用句の韓·日対象研究 ; 胴體部の가슴·(胸)と 배·(腹)を中心に」韓國外國語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박경선(2000), 「感情分類에 의한 身體語彙 慣用句 考察」中央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尹泳信(2007), 「韓國語와日本語의慣用句比較硏究」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소설

<한국>

박경리(1989), 『토지1-3』, 나남

이효석(2001), 『메밀꽃 필 무렵』, 교육문화연구회

_____(2001), 『화분』, 교육문화연구회

염상섭(2002), 『삼대 上,下』, 소담출판사

김유정(2010), 『동백꽃』, ㈜리베르스쿨

박완서(2003),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김주영(2007), 『달맞이 꽃』, 휴이넘

권비영(2009), 『덕혜옹주』, 다산북스

황순원(2010), 『소나기』, ㈜리베르스쿨

주요섭(2010),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리베르스쿨

김유정(2010), 『동백꽃』, ㈜리베르스쿨

_____(2010), 『만무방』, ㈜리베르스쿨

<일본>

青野聰(1983), 『愚者の夜』, 文芸春秋

宮本輝(1990), 『真夏の犬』, 文芸春秋

綿矢りさ(1997), 『蹴りたい背中』, 河出書房新社

浅田次郎(1997), 『悪魔』, 株式会社集英社

松本バナナ(1998),『キッチン』, 角川書店

重松清(2012),『ビタミンF』, 新潮社

5. 사전(辭典)

<한국>

『國語國文學大辭典』, 서울대동아문화연구소편

김사영(1989), 『동아 새국어사전』, ㈜ 동아출판사

박영준·최경봉(1996), 『관용어대사전』, 태학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남영신(2002), 『라이브 국어사전』, 성안당

<일본>

『国語学大辞典』(1988), 国語学会. 東京堂出版

白石大二(1990), 『国語慣用句辞典』, 東京堂出版

森田良行(2010), 『日本語の慣用表現辭典』, 東京堂出版

6. 인터넷 이용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21세기 세종계획(http://www.sejong.or.kr/)

Collection @ chosun